

## 북향의 달인들

### - 중소기업의 ‘나만의 기술’ 일품전시 교류회 전문기

2007년 7월 27~28일 이틀동안 일본의 후쿠이현(福井縣) 섬유험회는 ‘독자 기술 일품전시 교류회(獨自 技術 逸品展示 交流會)’를 개최하였다. 후쿠이현 현내(縣內 : 우리의 道內) 섬유험기업들이 갖고 있는 뛰어난 기술이나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기업간 제휴와 다른 업종과의 매칭(matching)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시도이다.

개막식을 하면서 교류회 실행위원장인 섬유험회장은 “기업 가치는, 규모의 크기가 아니라 ‘나만의 기술(獨自技術)’이 얼마나 많느냐로 정해진다. 이들 기술을 어떻게 함께 살리는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을 하느냐가 산지로서 살아 남는 길이다.”는 요지의 개최사를 하였다. 이 말에는 어패럴 기업 등의 거래선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품생산을 맡은 기업들이 서로의 기술에 대하여 식견을 넓히며, 서로 제휴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는 전시 교류회의 의의가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출품 기업은 모두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뿐’이라는 말 그대로 북향(北鄉)의 호쿠리쿠산지(北陸產地)기업이 갖고 있는 달인(達人)의 기술과 감성을 잘 나타낸 전시품이 전시 회장에 넘치고 있었다.

#### ◎ ‘신’에 홀린 달인의 기술과 감성의 작품들

전시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맨 먼저 눈에 띄는 데가 ‘야마자키 비로드(山崎 veludo : velvet – pile이 짧은 경pile 직물)’의 부스(booth)였다. 야마자키 회장의

역작(力作)인 ‘견명(絹鳴 : scrooping)을 내는 실크 100% 벨벳’이나, 뉴욕근대 미술관에도 소장되어 있는 파일부분에도, 일본의 화지(和紙)를 겹들인 ‘화지 비로드’, 수축이 큰 폴리에스터를 이용하여 표면 변화가 볼만한 ‘웨이브 벨벳’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 특히 인기가 좋은 ‘먹물 흘린 비로드’나 ‘초목염(草木染) 벨벳’은, 그야말로 달인의 기술과 감성이 고도로 융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바로 옆 부스의 와다나베 섬유(渡邊纖維)는 랜덤 엠보스가공(random embossing finish :凹凸 롤러 등으로 무늬를 만드는 가공) 폴리에스터사(絲) ‘야무스’로 만든 텍스타일도 재미있다. 이제까지의 제품에는 없는 표면변화나 스펀라이크(spunlike) 촉감, 독특한 신축성이 매력적이다. 와다나베 사장은 “이 아이디어는 약 40년 전부터 갖고 있었으나, 가공방법을 확립할 수 없었는데, 2년 전에 겨우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말하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의 시행착오와 기술적 축적 끝에 완성한 소재이다.

히가시노 도키치(東野東吉)제직공장의 ‘화지 하부다에 직물(和紙 羽二重 織物)’은 화지의 실과 견(絹)을 교직하여 메밀이나 벚나무 등에서 추출한 천연 염료를 손으로 직접 염색한 우수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현지의 지바산교신 코센터(地場産業 振興 center)와 공동 개발하였다. 하부다에 직물 뿐 아니라 슈트(suits)나 타월을 완성하였다. ‘하부다에’로 키워온 직포기술과 화지의 실, 천연염료로 짜맞춰, 독특한 색과 광택감, 촉감을 만들어 냈다.

교와 텍스타일(協和 textile)은 화지의 실이나 옥수수 섬유의 실로 만든 타월, 내의 등을 출품하였다. 특히 화지의 실은, 연사(撚絲)도 하고 있어 S연과 Z연을 독자적인 노하우로 섞어 씬으로써 실의 강력과 유연성도 갖추고 있다. 이 공장이 만든 화지 실크 복합소재로 만든 담요는 일본 황실에 제공할 정

도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들 모두 후쿠이 산지기업들이 갖고 있는 수준 높은 독자기술을 살려 만든 상품으로서 개막 초기부터 관람자의 주목을 받았다.

### ◎ 발상을 전환시켜 개성 잘 나타내

이번 독자 기술 일품 교류회는 나만의 기술이라는 감(感)이 풍기는 매우 독특한 상품이 많이 출품되었다. 조금만 머리를 써도 얼마나 획기적인 소재나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러한 작품을 만드는 기본을 새삼 배우게 된다.

폴리에스터를 중심으로 한 팬시 텍스타일을 다루는 야마모토 젠시 상점(山本善士商店)은 독특한 폴리에스터·레이온·마 혼방의 ‘오건디(organdy : 평직 등의 비쳐보이는 얇은 천)’를 출품하였다. 자루조직(hollow weave or circular weave) 중에 레이온·마 혼방의 특수한 실을 섞어 짠 다음에 특수가공으로 자루조직 중의 실을 끊어서 독특한 형태변화를 만들어냄으로써 높은 의장성(意匠性)을 만들어 냈다. 야마모토 사장이 “원래는 가공이 실패하여 생긴 소재”라고 밝힌 점이 재미있다. 작품을 만드는 힌트는 어디에서 나타날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발상의 유연성과 재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겠다.

동사에서는 여기에 펄 라메(pearl lamé)사(金·銀箔絲) 등을 섞어서 의장성을 높이는 등, 완성도를 높였다. 의류뿐만 아니라 양산감(陽傘地)이나 인테리어 용도에도 사용될 수 있어 주목을 받았다.

후쿠이시에 있는 오리고보 후비샤(織工房 · 風美舎)의 ‘므와레 매직(Moire magic)’도 발상을 바꿨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것이다. 두장의 평사직물(平紗織物 : plain gauze)을 겹쳐줌으로써 간섭무늬가 생기는데, 이를 살짝 움직여도

‘므와레’ 모양의 움직여주는 독특한 발상을 만들어낸 소재이다. 동사에서는 이를 일본 전통 화장(和裝)의 조그마한 장식물이나 백(bag), 인텔리(intelligentsia : 지식인) 용품으로 살리고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알기 쉬운 기능과 이상한 소재감이 보는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쓰바키하라 오리모노(椿原 織物)는 ‘에치젠(越前)’의 화지(和紙)와 직물이 결합(docking)한 ‘스키오리’를 출품하였다. 옛적부터 전해오는 화지의 전통을 잘 유지하면서, 직사와 화지를 물만으로 걸러서, 이제까지의 섬유상식을 넘는 외관과 질감을 만들어 냈다. 에치젠의 전통공예인 화지와 본고장 산업인 섬유의 컬래버레이션이라는 뜻에서도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로 스크린이나 유리 덮개용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직물변 상표(織物邊 商標) 기업의 조합인 마루오카(丸岡) 파인텍스(finetex) 협동조합은, 이 조합이 출품한 Y자 단면 실키 폴리에스터사인 ‘파인 실키(fine silky) FS’는 직물변 상표용 실인데, 독자적인 루트에서 생산하는 소로트성과 원래 물들여졌던 색의 재현성, 112가지 색이라는 다채로운 색의 상품을 만들어 냈으므로 직물변 상표 이외의 용도로도 적지 않은 문의가 있었다. 실제로 전시회 기간 중에 함께 출품하였던 레이스 전문의 큰 회사인 다케타 레이스가 깊은 관심을 보였다.

작품 만들기는 굳이 첨단 하이테크 소재를 활용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다. 기존 기술을 베이스로 하거나, 본고장의 전통적인 소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발상의 전환만 이루어지면 온리 원(only one) 소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나만의 기술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 섬유(下流)와는 최종제품으로 경쟁

이번 독자 기술 일품 전시 교류회에서는 개성이 뚜렷한 최종제품이 많이 눈에 띈다. 연구기관과의 공동개발과 같은, 산지 전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섬유하류(downstream) 분야와 경쟁하는 상황이다. 잉크젯 프린터와 같은 신예 설비를 활용한 제품개발도 눈에 띈다.

산업자재용 직물을 주력으로 한 가나츠(金津)섬유는 후쿠이현 공업기술 센터와 공동개발한 폴리젯산섬유(poly lactic acid : PLA 纖維)로 만든 ‘에코 백 (eco-bag)’, ‘Kna+’를 출품하였다. 새로 개정된 용기포장 리사이클을 염두에 둔 개발이 성공하여, 이미 다카시마야(高島屋) 백화점 지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8월하순부터는 5개 백화점 지점에서 판매하게 된다. 내열성이 낮은 PLA 섬유에 독자적인 기술로 열고정(heat set)하여 플리즈(pleats) 가공을 한 디자인성이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우치다 연사(内田 攪絲)는 폴리프로필렌과 고무실(rubber yarn)의 교직직물을 활용한 구두(또는 신발) 미끄럼 방지 상품 ‘스노 슬립 가드(snow slip guard)’를 출품하였다. 경사 고무실은 무장력 상태로 짜는 공정에 독자적인 노하우가 있으며, PP도 기모가공을 하는 등 머리를 써서 높은 성능을 만들어 내고 있다. 네트판매(net 販賣)하기도 하고, 도큐핸즈 신주쿠점(東急 Hands 新宿店)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며, 2004년에 판매하기 시작하여 이미 4,000개를 판매한 히트상품이다.

이나야마(稲山) 직물은 자랑감인 스포츠 웨어용 투습방수 기능직물을 활용하여 교통안전판초인 ‘세이프티 사이클 판초(safty cycle poncho)’를 개발하였다. 비오는 날에 자전거를 탈 때 등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디자인도 고교생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랜드 코트(grand coat or Mackinaw coat : 격자무늬

의 두꺼운 모직물로 만든 짧은 상의)’ 스타일로 만들었다.

오카모토 레이스(岡本 lace)는 ‘스트링 커튼(string curtain)’과 ‘와이핑 클로스(wiping cloth)’를 제안하였다. 스트링 커튼은 한줄이 6,600dtex 이상으로 굵으며, 중량감으로 안정된 디자인성을 나타냈다. 또한 와이핑 클로스는 마이크로 파이버의 경편으로 양면파일로 만듦으로써 기존제품에는 없는 두께로 만들었다. 여기에 잉크젯 프린터로 사진 등 여러 가지 도안을 프린트 하였다.

이와 같이 시마다(島田) 섬유도 잉크젯 프린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다. 오더 메이드(order made)로 여러 가지 무늬의 안감이나 태피스트리(tapestry : 무늬가 있는 양탄자), 넥타이를 생산하고 있다. 2006년도의 후쿠이현 자립화 지원사업으로 잉크젯 프린터를 도입하여, 현재는 지명도가 올라갔고, 시장도 개척하고 있으며, 안감은 이미 주가이 쿠니시마(中外 國島)의 제품사업에서도 채용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산지기업이 최종제품까지 손수 만듦으로써 섬유하류분야로 자진하여 나서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 역시 나만의 기술이나 노하우와 같은 독자적인 기술이다.

### ◎ 산지의 명물기업도 나만의 기술로 큰 실적 보이고 있어

개성있는 산지기업이 독자 기술 전시 교류회에 많이 출품하고 있는데, 산지를 대표하는 명문기업들도 다른기업에 뒤쳐지고 있지는 않다. 이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등이 큰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도 나만의 기술의 인상을 주고 있다.

규모가 큰 레이스전문인 다케타 레이스의 ‘원웨이 투웨이 스트레치 레이스

(one way two away stretch lace)’는 원웨이와 투웨이라는 특성이 다른 생지(生地)를 심리스(seamless)로 하나로 편성하여 만들어 냈다.

해외제품과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너 레이스(inner lace) 분야에서, 해외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 레이스를 개발하여 봉제공정에서 생산효율을 올리는데 공헌하고 있다. 또한 ‘파워 커브(power curve)’는 탄력성이 있는 스판덱스를 생지의 곡선을 따라 짜 넣은 것이다. 그러므로써 보정 이너(補整 inner)에서 요구되는 복잡한 스트레치 제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2010년이면 창업한지 100주년이 되는 케이티 그룹(KT Group)은 100년의 기술을 테마로, 자랑할만한 스포츠용 고밀도 직물이나 학생복 소재 등 다채로운 상품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대두단백 섬유(大豆蛋白 纖維)와 폴리젗산(poly 乳酸 : poly latic acid) 섬유 복합의 리버서블 니트(reversible knit : 안팎으로 입을 수 있는 니트)도 재미있는 소재이다.

전통있는 염공장(染工場)인 우라세는, 이 계열의 제직업인 마루산아이와 공동으로 부스를 차렸다. 마루산아이의 초고밀도 직물에 우라세의 착색(着色 : 색깔이 나는) 오팔가공(opal 加工 : 혼방 또는 교직물에서 무늬에 따라 약품에의 용해성차로 용해하는 가공)을 하는 등, 그룹으로서 종합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수농염가공(特殊農染加工)으로 적외선을 열로 변환하는 축열보온(蓄熱保溫) 블랙소재인 ‘알타네로 KA’도 주목받을만 하다.

구마사와(熊澤) 상사(商事)는 자랑하는 트리아세테이트 ‘소아론’과 울을 후염한 생지를 출품하였다. 가공하기 어려운 트리아세테이트와 울을 복합함으로써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한다.

교쿠요 산업(旭陽 産業)은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비닐리덴 섬유 ‘사란

아트 TC'나 풀덜(full dull) 폴리에스터와 레이온을 복합한 냉감소재 '에라쿨', 열합착(熱合着) 스판덱스 '로이카 SF'를 활용한 FTY(filament twisted yarn)를 제안하였으며, 모회사인 아사이가세이(旭化成)섬유나 아사이가세이 그룹과의 강한 제휴를 보여주었다. 유니티카 사카이는 30주년을 맞는 '실미 5' 시리즈를 출품하였다. 광택가공을 하는 등 전통성과 실적을 바탕으로 더 한층 발전하려 하고 있다.

세렌은 일관생산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무봉제 니트웨어 '프리모디알'을 출품하였다. 뛰어난 의장성(意匠性)과 착용감을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염색시스템 '비스코텍스'를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사카이오백스는 상압카티온(常壓 cation) 가염 폴리에스터 오팔가공(可染 polyester opal 加工)의 '찬팔(燦pal)'이나 그룹회사인 마루이 텍스타일 등을 활용한 실가공·제직·염색가공으로 초세번수를 일관되게 짠 직물이 인상적이다.

그 외로는 자사에서 실을 개발한 다나카추(田中忠)의 '천 산통(布 shantung : 위사에 슬립사를 사용하여 직물 표면에 불규칙한 매듭이 드러나 보이는 직물)', 데이진 파이버(帝人 Fiber)의 방충웨어(防蟲 wear) '스코론'으로 활약하고 있는 나카다쓰(中龍)의 방충가공 생지, 유럽의 고급브랜드에도 채용된 야마나오(山直) 직물의 견직물, 콜라겐·아미노산 부여가공(collagen amino acid 附與加工)한 '스킨디'를 출품한 도요센코(東洋染工), 공동으로 부스를 차린 도모다(友田), 후쿠이 야마모토(福井山本), 후쿠이 상사(商事)의 단열커튼이나 선염형상기억소재, 레더(leather)를 닮은 데님 등, 호쿠리쿠 산지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높은 기술력을 남김없이 보여준 것이 이번 전시회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다.



## ◎ 산지의 생산기반이나 기술력은 합섬메이커의 힘의 원천

이번 독자 기술 전시 교류회에서는 특별 출품으로서 연구기관과 합섬메이커 7개사도 참가하였다. 이 전시회에서는 과거와 현재 모두 일본의 섬유업계에게, 산지야말로 바로 개발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뚜렷히 보여주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부스 2개 넓이로 부스를 차린 후쿠이현 공업기술 센터는 바로 호쿠리쿠 산지의 브레인으로서 존재를 보여주는 출품 내용을 전시하였다. 그 중 하나가 가나즈 섬유(金津 纖維)와 공동으로 개발한 폴리젯산(poly lactec acid : PLA) 섬유로 만든 ‘에코백(eco bag)’이다. 플리츠(pleats)가공에서 열 컨트롤이나 강도시험 등에 이 센터가 큰 역할을 해왔다.

또 하나 주목받은 것이 전자선 그래프트 중합(電子線 graft 重合)에 의한 기능가공기술이다. 천연섬유로부터 합섬까지 여러 가지 섬유에 기능가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세탁내성이 높고 축감도 큰 변화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열 대신에 전자선을 사용하므로 생에너지(省 energy) 뿐만 아니라 포르말린 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환경에도 좋다. 이 센터의 연속생산방식은 세계에서 최초의 기술이다. 이미 구라보, 닛카화학(日華化學), 사카이오백스, 미쓰야 등과 공동연구도 추진하고 있어, 머지않아 본격적으로 실용화할 것이다.

그 외에 플라스틱 광 파이버 직물, 탄소섬유 개섬사를 사용한 열가소성수지 프리프레그(prepreg) 시트(sheet), 시트재(sheet材)를 슬릿(slit)한 플랫 사(flat yarn)에 의한 제직기술 등과 같이 이 센터가 갖고 있는 높은 연구개발능력이 모든 관람객에게 어필(appeal)하였다.

이와 같이 특별출품한 합섬메이커는, 자랑할 만한 여러 차별화기능소재를

늘어 놓고 있다. 도레이는 단섬유에 나노 스케일로 기능재피막(機能材被膜)을 형성하는 나노매트릭스(nano-matrix), 고에너지에 의한 섬유표면 개질가공, ‘나노프렘’, 기능재를 3차원 구성으로 부여하는 ‘나노라멜라(nano-lamella)’와 나노테크가공을 한 소재를 앞에 내놓고 있다.

데이진(帝人) 파이버는 흡습할 때 섬유가 팽윤하면서 나타내는 움직이는 섬유 ‘MRT 파이버’나 나노테크에 의한 무염료 발색소재 ‘몰포텍스’를 출품하였다.

미쓰비시 레이온 텍스타일(三菱 rayon textile)은 움직이는 섬유, ‘벤트 쿨’을, 도요보는 초경량 고밀도직물 ‘실파인’ 시리즈를 출품하였다. 모두 각사를 대표하고 있는 화제의 상품들이다. 또한 유니티카 파이버는 유니티카 사카이 부스와 나란히 발매 30주년을 맞는 실키소재 ‘실미 5’ 시리즈로 어필하고 있다.

아사이가세이 섬유(旭化成 纖維)는 열성형(熱成型)이 가능한 고기능 스판본드 부직포 ‘스매시(smash)’를 제안하고 있으며, 구라레와 구라레 트레이딩은 고도전성 폴리비닐알콜섬유 ‘구라론 EC’나 카본 함유 도전섬유 ‘구라가보’, 열수(熱水) 용해성 섬유 ‘민트발’, 에틸렌 비닐 알콜섬유와 폴리에스터의 심초구조복합소재(芯鞘構造複合素材) ‘소피스타’를 출품하였다. 이들은 모두 니치(niche)인데, 온리 원(only one)의 기수로 이루어진 소재들이다.

이들 합섬메이커 전시물을 보면서 새삼 느낀 것은, 역시 산지의 생산기반이나 기술력이 바로 일본 합섬 메이커의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유니티카 파이버의 ‘실미 5’는 개발단계에서 이번 전시회에도 참가한 이나야마(稲山) 직물과 우라세가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합섬메이커의 차별화소재 배경에는, 반드시 호쿠리쿠 산지의 제직업,

가공장(加工場) 등의 존재가 있다는 것들을 다시 인식하였다.

### ◎ 기술의 향상이 더욱 중요

후쿠이현을 중심으로 한 산지의 ‘작품 만들기’ 기업이 서로의 독자기술을 내놓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제휴 기회를 모색하는 독자 기술 전시 교류회는 이번이 최초 시도였는데, 주최한 후쿠이현 섬유협회에 의하면 관람자는 이틀 동안에 약 800명으로 대성황으로 막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섬유 협회장이기도 한 실행위원장의 소감을 들었다.

이번 전시 교류회를 보고 정말로 놀랐다. 나 자신도 몰랐던 기술이나 상품이 많이 출품되어, 놀랄만한 기술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역시 후쿠이현의 기업에는 엄청난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 교류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어패럴 등의 전시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작품만들기를 하는 산지기업들이 서로 독자적인 기술을 발표하여, 교류를 시도함으로써 서로간에 매칭 기회를 얻는 것이 목적의 하나였다. 이번이 최초였지만 이를 기회로 새로운 컬래버레이션을 유도하여 산지전체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

앞으로 이 전시 교류회는 꼭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번의 호평을 발판으로 새로 출품을 희망하는 기업도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이번에 특별히 출품해 주신 기업들도 꼭 계속 참가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만 한번 출품한 기술을 다시 출품할 수는 없다. 계속하여 출품하기 위하여는 끊임없이 새기술 새상품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기술갱신이 산지를 활성화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은 최초 시도로 개최된 기술 전시 교류회인데, 그 의의는 첫째로 그동

안의 원사메이커 - 산모토(産元) 상사 - 제직·니터·염공장이라는 수직방향 제휴가 중심이었는데, 일본의 산지구조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다른 업종과의 수평적 제휴 계기를 모색한 점일 것이다.

현재 일본 섬유산지를 둘러 싸고 있는 환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글로벌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의 파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본다. 즉 경제가 글로벌화 하는데 따라, 대기업들은 최적 입지를 찾아서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김으로서, 선진국의 기존 공업지대가 공동화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도시나 지역 중소기업들은 서로 수평적 제휴로 다 품종 적량(適量) 생산의 플렉시블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항하여야 한다.’는 ‘도시경제학(都市經濟學)’으로부터의 제언(提言)이 있다. 또한 ‘창조 도시의 경제학’에 의하면, 이태리의 볼로냐(Bologna)시(市) 등이 이 이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전시 교류회를 통하여, 후쿠이현, 그리고 호쿠리쿠산지가 그동안 수직적 제휴를 넘어서는 수평적 제휴의 구축으로 글로벌 리스트럭처링에 대항하는 산지의 새로운 모양을 제시한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